

#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 - 1차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

정용조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I. 서론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제1회 1차 필기시험이 2019년 4월에, 제2회 1차 필기시험이 10월에 실시되었으나, 제2회 1차 필기시험에선 합격자 인원미달로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재시험이 12월에 실시되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현재의 나무의사 자격 1차 시험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나무의사 제도를 알아보고,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에 등록된 수험생들의 질의내용을 검토 분석하였으며,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수험생과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양성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예비수험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첫째, 문헌조사에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및 범위, 합격자 결정 그리고 양성교육기관 현황과 양성과정 교과목 및 수료기준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나무의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온라인 상담게시판의 질의와 답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과 다음 카페 및 네이버 블로그에 등록된 질의 내용 분석

첫째,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교육 운영계획과 강의계획 및 교육환경의 적정성, 지역별 교육수요 등을 기준으로 수험생 선발을 하였으나, 선발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양성

기관 교육비도 너무 비싸 교육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둘째,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과목별 시험문제 출제범위, 시험 문제 난이도, 시험문제 공개, 1차 시험 합격률, 참고도서(교재)에 대한 질의도 많았으며, 수험생들은 시험문제 공개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2회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률이 1% 미만으로 12월 14일 불합격자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험문제 출제, 자격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설문조사 결과

##### 1) 기본정보

설문자의 기본정보에 대한 결과는 남성이 144명, 여성이 68명으로 68:32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실무경험이 많은 남성이 여성보다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그 중 50대가 36%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업무분야에서는 학계와 연구원, 공기업이 각각 5%, 일반기업이 53%, 기타 37%를 차지하였으며, 공무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직급에 대한 답변에서는 사원~대리가 10%, 과장~부장이 22%, 임원이 14%, 기타가 78%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중이 5%, 전문학사가 9%, 학사가 65%, 석사(수료 포함)가 18%, 박사(수료 포함)가 3%로 학사 및 석사학위가 대부분(83%)을 차지하였다. 전공은 조경학이 32%, 산림과학(임업)이 9%, 농생물학이 12%, 원예 및 화훼학이 7%, 기타가 40%를 차지하였다.

##### 2) 양성기관

양성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양성기관 선정기준은 적절한가? 라는 질문에 41%가 그렇다, 37%가 보통으로 답하여 다수(78%)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양성교육 수요자에 비해 양성기관이 부족한가? 라는 질문에 다수(66%)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생들은 양성기관을 늘려야 한다

고 답하였다. 양성기관의 교육비는 적절한가? 라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가 69%를 차지하였으며,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가 83%를 차지하였다.

### 3) 나무의사 자격시험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연간횟수는 적절한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은 적절한가? 라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험에 참고할 도서는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다수가 충분하지 않다. 라고 답하였으며, 1차 필기시험 합격률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험문제 출제와 자격증 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의 위탁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IV. 결론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 과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수험생들은 많은

공부량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전 교육을 수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하에서는 교육생 수보다 양성기관이 부족한 실정 이므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 시험 후 합격하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셋째,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각 양성기관 별로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과정 등록과 내일 배움카드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험문제 출제, 자격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과목별 시험문제 출제범위, 시험문제 난이도, 시험문제 공개, 1차 시험 합격률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http://www.kofpi.or.kr>